

나말여초 최치원과 최언위

이현숙*

|| 차례 ||

1. 머리말
 2. 고려와 송대의 평가
 3. 최치원과 최언위
 4. 맺음말
- 참고문헌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문학사에서 崔致遠(857-?)이 鼻祖의 지위를 가진 것에 비해, 동시대를 살았던 崔彦擣(868-944)가 철저히 무시되었던 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당에 유학하고 빈공과에 급제한 뒤, 신라에 귀국하여 문한관을 역임하였다. 특히 최언위는 나말여초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선사비명 작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신라에 이어 신생 고려조정에서도 대표적인 문장으로 활약하였다. 두 사람은 10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지식인 사회에서 같은 반열에서 언급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 최언위의 문장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종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혀보았다. 첫째, 두 사람에 대한 후대 평가에는 1146년 완성된 『삼국사기』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宋祁와 歐陽修 등과 같은 宋初 문인들의 최치원 재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1041년 <崇文總目>을 찬집하면서 최치원의 문장을 주목하게 되었고, <구당서>와 달리 <신당서> 예문지에서 최치원의 문집을 다루었다. 이후 1080년경 宋王應麟의 <玉海>에서 최치원의 사육문은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인식은 최치원이 한국문학사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하는데 일조를 하

* 영국 Durham Uni. 연구교수

였다. 둘째, 최언위의 문장이 일찍 민멸되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최언위의 아들 崔行歸가 光宗대 伏誅되는 과정에서 그가 남긴 문장이 모두 사라졌을 가능성이 많다.

주제어 나말여초, 최치원, 최언위, 한국문학사, 선사비명

1. 머리말

나말여초에 활약한 崔致遠(857~?)과 崔彦撝(868-944)는 崔承祐와 더불어 고려 초에 이미 최고의 문장가로서 알려졌다. 즉 고려 광종 5년(954) 태자사 郎空大師의 法孫 純白은 당의 과거에 합격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활약한 이들을 당시에 “一代三崔”라고 부른다고 소개하였다. 이 가운데 최승우는 고려에 끝까지 항거한 후백제에서 활동하였기에, 전해져 오는 몇몇 시를 제외하면 그 사적을 알기가 어렵다. 신라 진성, 효공왕대 화려한 문필 생활을 영위하였던 최치원은 신라말 해인사에 은둔한 채 생애를 마감하여, 그 직계 자손들은 고려 초 활동이 거의 없다. 이에 비해 최언위는 고려에서도 벼슬을 하여 그 손자 최항은 현종대의 권신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언위는 고려 문학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언위는 최치원과 마찬가지로 당에 유학하여 당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오랫동안 문한직을 역임하였다. 당 유학 - 당 과거합격 - 귀국 후 문한직 역임으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역정에서, 그들이 세속적으로 추구한 바는 같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나말여초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 11년이라는 나이 차를 가진 두 사람이 실제 갔던 길은 다르게 나타났다. 최치원이 902년 은거를 택해 세속 정치와 자신을 단절시킨 것에 비해, 최언위는 신라에 이어 고려에서도 벼슬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치원이 고려 문인들에게 동국 문장의 鼻祖로서 인정을 받은 것에

비해, 최언위는 그 존재조차 잊혀졌다. 또한 최치원은 나말여초의 문장가 가운데 가장 많은 글이 현전하는데 비해, 최언위는 돌에 새기어 남아있는 비명을 제외하면 전해지는 글이 전혀 없다.

나말여초라는 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던 최치원과 최언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로 인해 많은 점들이 밝혀졌다.¹⁾ 비슷한 시기에 활약하였던 최치원과 최언위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두 사람과 나말여초 사회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동시기에 활약한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주인공 인물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 연구는 인물 연구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치원과 최언위를 문장가로서의 면모에 주목하여, 전자는 동국 문장의 비조로서, 후자는 그 존재 자체마저 무시되었던 연유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려와 송대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고찰한 뒤, 두 사람이 걸었던 인생의 여정과 비문 작성에 나타난 몇몇 특징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는 최언위의 문장이 비문이외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인의 문장에 대해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두 사람의 정치적 사상적인 면에 관한 고찰은 미처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1) 최치원에 관한 연구 성과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 그에 관한 방대한 연구 성과를 이해하는 데 다음의 글들이 참고가 된다. 최병헌(1997), 「최치원 연구사에 대한 분석」, 『원불교사상』 21 ; 엄원대(1997), 「최치원 연구사에 대한 분석」, 『고운의 사상과 문학』, 신지서원 ; 장일규(2002), 「최치원 연구의 성과와 전망」, 『북악사론』 9.
한편 최언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미(1955), 「나말여초 최언위의 현실인식」, 『사학연구』 50 ; 이현숙(1995), 「나말여초 최언위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이화사학연구』 22집.

2. 고려와 송대의 평가

1) 고려

최언위는 자신의 활동 무대가 달라질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여, 한 동안 그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 즉 당 유학을 떠나기 전 까지 愼之라는 이름을, 당에서 돌아와서는 仁澆이라 개명하였고, 고려에 귀부하여서는 彦擣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가 삶의 무대가 바뀔 때마다 개명하였다는 사실에서, 과거를 끊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자 노력한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²⁾ 고려 초기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였을까?³⁾ 954년에 건립된 태자사 낭공대사비의 음기에 이에 관한 자료가 있다.

(최)仁澆은 진한의 번성한 집안이다. 사람들이 이른바 ‘一代三崔가 金榜에 이름을 걸고 돌아왔으니, 최치원·최인연·최승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가운데 사람이다. 학문은 海岳을 품안에 넣어 다섯 수레의 책에 두 수레를 더하고, 재주는 풍운을 휘감아 (글을 지을 때) 일곱 걸음에서 세 걸음을 뺄 정도로서, 실로 군자국의 군자이고 大人鄉의 대인이었다.⁴⁾

최인연은 최언위가 신라에서 사용하던 이름이다. 낭공대사 行寂의 제자 純白은 비문의 찬자인 최언위를 최치원·최승우와 같은 반열에 올려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언위의 학문이 높고 문장이 뛰어났음을 당시

2) 필자는 ‘仁澆’이라는 이름은 당시 혼란한 신라 사회 속에서 儒佛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仁’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였고, ‘彦擣’는 새로운 왕조를 돕는 선비라는 뜻으로 작명하였다고 추정하는 바 있다. 이현숙(1995), 앞 글, 8면.

3) 최치원에 대해 고려와 조선에서 이루어진 한 후대의 평가는 다음의 논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김창겸(2001), 「고운 최치원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주류성, 따라서 본고에서는 송대의 평가가 고려에 끼친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4) 「낭공대사비」, 『역주 나말여초금석문』 하, 해안, 292면.

식자들이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146년에 완성된 『삼국사기』 권 46의 최치원 열전과 최언위 열전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에 대한 기술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의 경우, 『계원필경집』에 있는 문장 「上大師侍中狀」 전문과 顧雲의 전별시까지 기재하고 있다. 또한

『신당서』 예문지에 이르기를 최치원의 『四六集』 1권과 『계원필경』 20권이 있다하고, 그 후에 최치원은 고려인으로 빈공과에 급제하여 고변의 종사관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 이름이 중국에 알려진 것이 이러하였고 또 문집 30권이 세간에 행하여 온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의 찬자 김부식은 唐人과 문장으로 교통하였던 최치원의 글을 직접 소개하고, 『신당서』 예문지에 최치원의 문집이 소개된 것을 통하여, 그의 文名이 중국에까지 통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비해 최언위는 설총전에 부수되어 당 유학과 급제, 官歷만 간단히 기재되었다. 그의 문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최치원과 달리 최언위의 글은 『삼국사기』 찬집 당시에도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삼국사기』 이후 고려시대 글에서 최언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최치원은 1020년(현종 11) 內史令이라는 고려 관직이 증직되면서 文廟에 從祀되었는데, 2년 뒤 文昌侯로 추봉되었다. 1021년(현종 12)에는 신라의 설총을 弘儒侯로 추증하고 문묘에 종사하였다. 이는 기왕의 지적처럼, 현종대 경주계의 문신들의 정치적 진출과 무관하지 않다. 신라 문인의 문묘종사를 통해, 현종대 정권을 잡은 경주계 문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고 고려 문화가 신라 문화를 계승 발전하였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⁵⁾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최치원의

5) 김용곤(1985), 「고려 현종대의 문묘 從祀에 대하여」,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523면.

선양 작업에는 최언위의 손자 崔沆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항은 991년(성종 10) 20세의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여, 목종대 두 번의 지공거를 역임하였다. 현종 추대의 공으로 인하여 왕의 사부가 되었는데, 그는 성종대 폐지된 팔관회를 부활시킬 만큼, 현종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하였다.⁶⁾ 최치원을 문묘종사하게 된 데에도 최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11세기 초 최치원은 고려 관인들에 의해 공자묘에 종사될 정도의 巨儒로서 평가되었으며, 최치원 선양작업의 중심에는 최언위의 손자 최항이 있었던 것이다.

최치원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13세기 들어 이규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破天荒之大功'을 내세워 동방학자들, 즉 고려의 학자들이 최치원을 祖宗으로 삼는다고 지적하였다.⁷⁾ 사실 이규보는 최초라는 의미를 최치원이 중국에서 문명을 떨쳤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⁸⁾ '최치원에 와서야 입당 급제하여 문장으로 海內, 즉 중국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라고 하여,⁹⁾ 그 기준이 중국에서의 文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신당서>에 최치원에 대한 전기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중국인의 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⁰⁾

이에 비해 동시대인 崔滋(1188-1260)나 李仁老(1152-1220)는 약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이인로는 '빈공으로서 中朝에 들어가 擢第하였다'고 하면서 은둔자로서 고고함을 부각시켰고, 최자는 왕건에게 '鷄林黃葉, 鵠嶺靑松'이란 글을 바쳤음을 강조하고 있다.¹¹⁾ 이규보의 지적처럼 최치원이

6) 『고려사』 권 93, 「崔沆傳」.

7) 「崔致遠孤雲, 有破天荒之大功, 故東方學者, 皆以爲宗」, 『白雲小說』.

8) 호승희(1993), 「신라한시연구」, 이대박사논문, 1면.

9) 「至崔致遠入唐登第, 以文章名動海內」, 『白雲小說』.

10) 唐書不立崔致遠列傳議, 『東國李相國集』 권 22.

11) 호승희(1993), 앞 글, 2면.

한국 한문학사의 시조로 자리잡게 된 연유에는 중국에 문명을 떨쳤다는데 있으며, 여기에는 『신당서』 예문지의 공헌이 크다. 김부식과 이규보, 두 사람 모두 『신당서』 예문지에 최치원의 문집이 소개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던 듯하다. 즉 최치원을 조종으로 파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지닌 중국에서의 文名 때문이었고, 이는 『신당서』 예문지가 확실한 그 근거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2) 송

최언위는 중국 측 자료에 그 족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에 비해 최치원은 신라인 가운데 가장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徐居正(1420-1488)의 『東人詩話』 卷上에 따르면, 신라 사람이 당에 가서 시를 사고자 하니 唐人이 “登潤州慈和寺上房”이라는 최치원의 시 구절을 써 주었다고 한다. 최치원의 시가 당에서도 널리 알려졌던 것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하겠다.¹²⁾ 그의 시는 『千載佳句』에 9연이 실려 있어 일본에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헤이안조의 시인 大江維時(887-963)가 일본 귀족의 취향에 맞는 한시를 편집한 『천재가구』는 925년에서 929년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치원 이외에도 김입지(7연), 김운경(1연), 김가기(1연), 박양(1연) 등 총 19구의 신라시가 게재되었다.¹³⁾

그런데 최치원의 문집은 945년에 완성된 『舊唐書』 經籍志에 소개되지 않았다. 어떠한 경로로 송대에 와서 그의 문집이 재평가 받기에 이른 것일까? 이를 밝혀내기 위해 우선 『신당서』 편찬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 완성된 『崇文總目』에 최치원의 문집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김중열(1983), 『최치원문학연구』, 고려대박사논문, 101면.

13) 호승희(1993), 앞 책, 100면. 『천재가구』의 1000여연 중 白居易 시구가 535연이고, 원진의 것이 66연이라고 한다.

『송문총목』은 1034년부터 3관과 秘閣에 있던 전적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1041년 완성을 본 궁중 내 보유 서적에 관한 목록이다. 이러한 작업은 당서를 새로이 찬정하기 위한 선결 작업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신당서』 편찬 작업이 1044년에 개시되므로, 사서 편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전적들에 대한 정리는 필수 작업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송문총목』에서 정리 확인된 서적은 모두 30,669권이였다. 이러한 작업은 한림학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 張觀·李淑·宋祁·王堯臣·王洙·歐陽修 등이 주도하였다.¹⁴⁾

이 가운데 송기와 구양수는 신당서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신당서』 예문지는 『송문총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신당서』 예문지에 최치원의 저작이 기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송문총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의 문집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송문총목』에 기재되어 있는 책들은 대부분 송 태종 태평흥국 연간(976-983)부터 궁중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최치원의 문집은 송 초기에 이미 중국에 소개되어 학자들의 수집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송문총목』 권12, 별집류에 기재된 최치원의 저작은 “桂苑筆耕二十卷, 崔致遠四六一卷”으로서, 그 밑에 “闕”이라고 세주가 표기되어 있다. 1041년 『송문총목』 제작 당시, 최치원의 『계원필경집』 20권과 『사육문』 1권은 제목만 전할 뿐 망실되어 있었다. 『계원필경집』은 886년 최치원

14) “景祐元年閏六月，以三館及秘閣所藏，或謬濫不全，命翰林學士張觀，知制誥李淑，宋祁等，看詳定其存廢，訛謬者則去差漏者補寫。因詔，翰林學士王堯臣，史館檢討王洙，館閣校勘歐陽修等，校正條目討論撰次，定著三萬六百六十九卷，分類編目，總成六十六卷。於慶曆元年十二月己丑，上之賜名曰崇文總目。”，提要，『崇文總目』

15) “蓋崇文總目十二卷宋王堯臣等奉勅撰，以四館書併合著錄者也。宋制以昭文史館集賢爲三館，太平興國三年，於左升龍門東北建崇文院，謂之三館。新修書院，端拱元年，詔分三館之書萬餘卷，別爲書庫，名曰秘閣，以別貯禁中之籍，與三館合稱四館。”，提要，『崇文總目』

이 신라로 귀환한 다음 해 헌강왕에게 헌정한 그의 문집이다. 그 서문에 자신이 당에서 지은 문장과 이를 모은 문집을 “私試今體賦 5首 1권, 五言七言今體詩 共 100수 1권, 雜詩賦 共 30수 1권, 中山覆篋集 1부 5권, 桂苑筆耕集 1부 20권”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송기와 구양수 등이 『신당서』 예문지를 찬집하면서 제목만 전하는 최치원의 저작들을 검토도 없이 소개한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최치원의 저작은 새로운 검토를 통해 신당서 예문지에 소개되었다고 파악된다. 이는 『송문총목』의 제작 의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송문총목』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담은 提要에 따르면, 제작을 주도한 왕요신·왕수·구양수 등이 “조목을 교정하고 차례를 토론하였다”고 한다.¹⁶⁾ 이는 송초 문신들의 치열한 선정 작업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송문총목』에는 제목만 전할 뿐 망실된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총목의 제작 의도에는 없어진 책들을 보충하기 위한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唐史를 찬집하는데 필요한 책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과거에 어떠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최치원의 문집은 『송문총목』과 『신당서』 예문지에 모두 別集類로 분류되어 있다. 『송문총목』에서 소개한 별집류는 총 288부, 2902권이고, 『신당서』 예문지는 750부, 7668권이다. 예문지가 『송문총목』보다 472부를 더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집류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많은 저작들이 신당서를 저술하기 위해 새로 반입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때 최치원의 망실된 두 저작들도 확인을 위하여 재반입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신당서』 예문지에서 최치원을 소개하는 세주이다. 즉 “高麗人賓貢及第, 高駢淮南從事”라고 하여, 최치원을 고려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신라인으로 활약하였던 최치원을 고려인이라고 소개하였던 것은 바로

16) 앞의 주 14 참조.

망실된 최치원의 두 저작이 고려로부터 다시 반입되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파악된다. 즉 최치원의 두 저작은 『송문총목』을 통해 그 존재가 주목되었으며, 『신당서』를 찬술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수집되어 재평가를 받고 『신당서』 예문지에 실렸다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송초 한림학사인 宋祁와 歐陽修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송대의 학자 王應麟이 편찬한 『玉海』에도 최치원의 문집이 소개되어 있다. 『玉海』는 과거 응시 준비를 위해 여러 문헌에 나타난 기록과 문장을 종류별로 편집한 類書이다.¹⁷⁾ 특이한 점은 왕응린이 역대 별집류를 소개하면서, 唐代의 사육문으로서 최치원의 것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唐代의 문장을 종류별로 열거하면서, “四六文은 최치원이며, 贊文은 崔融이다”라고 하였다.¹⁸⁾ 이는 송대 문인들이 최치원의 사육문을 당대 최고로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신당서』 예문지에서 최치원의 사육문을 먼저 소개하고 『계원필경집』을 다음으로 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송문총목』에서는 최치원의 계원필경집이 먼저 소개되었는데, 『신당서』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었다. 『송문총목』의 차례가 송초 문신들의 토론 하에 결정되었던 것처럼, 어떠한 순서로 기술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서, 중요도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 그 관례였다. 『송문총목』과 『신당서』에서 최치원의 문집에 대한 기술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문집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송기와 구양수는 최치원의 저작 검토를 통해, 그의 사육문집이 『계원필경집』보다 더 우수하

17) “此書，卽爲詞科，應用而設，故臚列條目，率鉅典鴻章。”，提要，『玉海』

18) “唐之文，自太宗四十卷，至盧藏用三十卷，凡一百十六家。不著錄自玄宗至羅衮，皆集也。李嶠至皎然，皆詩也。盧獻卿至李山甫，皆賦也。陸贄至薛廷珪，皆制詞也。郭元振至趙璘，皆表奏也。四六若崔致遠，贊若崔融，策若魏徵至劉蕡，判若駱賓王至鄭寬。”，『玉海』 권 54, 類書.

다고 평가하였기에, 『송문총목』에서와는 달리 먼저 기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 송초 문신들에 의해 최치원 저작에 대한 평가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그대로 유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옥해』라고 하겠다.

『옥해』가 정확히 언제 찬술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왕응린이 송 인종 淳祐 원년(1056)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¹⁹⁾ 적어도 1080년대에는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의 사육문에 대한 인식은 남송대의 학자 鄭樵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通志』 권 70에서 당대의 사육문 15부를 소개하면서, 羅隱의 사육문집 두개에 이어 최치원의 사육문을 세 번째로 들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그 세주에서 “唐人”이라고 표기하였다. 이처럼 11세기 초에 최치원의 문집은 송대의 학자들로 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최치원 자체가唐人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최언위는 고려 초기까지 문인으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가, 후기에 이르러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최치원은 일대삼최라고 하여 최언위·최승우와 더불어 초기에는 비슷하게 평가를 받았으나, 고려 후기에는 신라 문학의 鼻祖로서 여겨지고 있다. 三崔에 대한 결정적인 평가는 『삼국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평가의 준거에는 『신당서』 예문지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는 최치원의 문집이 적어도 송 태종대에 중국 문사들에게 재평가되었던 연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최언위의 글에 대한 인식이 고려 중기 이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역시 최치원과 같이 당에서 유학한 뒤, 당 과거에 급제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상태였다. 궁극적으로 그가 고려 시대의 문인들로부터 도외시되었던 원인은 그의 글이 전하지

19) 『宋史』 권 438, 「王應麟傳」.

않는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치원과 최언위에 관한 고려와 송대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평가를 얻게 된 연유를 밝혀보기 위해, 두 사람의 생애와 찬술 비명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3. 최치원과 최언위

1) 생애 비교

최치원과 최언위의 생애에 관해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 자세히 정리되었다.²⁰⁾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왕에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연구자간에 의견이 다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한 연보를 말미에 첨가하였다.

(1) 두 사람의 관계

『삼국사기』에 의하면, 최치원과 최언위는 모두 경주 출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최치원은 857년 헌안왕이 즉위할 무렵에, 최언위는 868년(경문왕 8)에 출생하였다. 두 사람이 경주를 본향으로 하는 최씨인 것으로 보아, 同系 의식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왕에 알려진 것처럼 사촌간은 아니

20) 최치원의 생애를 다룬 대표적인 논고는 다음과 같다. 김복순(1980), 「고운 최치원의 사상 연구」, 『사총』 24 ; 최경숙(1981), 최치원연구, 『부산사학』 5 ; 김인중(1989), 「고운의 생애」, 『고운 최치원』, 민음사 ; 이재운(1999), 「고운의 생애와 정치활동」, 『최치원 연구』, 백산자료원 ; 최영성(2001), 「고운사상의 형성과정과 저술의 검토」, 『최치원의 철학 사상연구』, 아세아문화사 ; 남동신(2002), 「나말여초 전환기의 지식인 최치원」, 『강좌 한국 고대사』 8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최언위의 생애에 관해서는 김영미(1995)와 이현숙(1995)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었다. 「낭혜화상비」 말미에 “從弟朝請大夫守前執事侍郎賜紫金魚袋 臣崔仁沿奉教書”라는 구절로 인해, 일인학자 菅野銀八이 비문의 찬자인 최치원의 종제라고 잘못 해석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²¹⁾ 이는 비문의 주인공인 朗慧화상 無染에 대한 종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치원과 최언위는 가까운 혈족관계가 아니었음은 확실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굳이 규정하자면, 사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후술하겠거니와, 최언위가 국학에서 수학하던 현강왕과 진성여왕 무렵은 최치원이 신라 문한관으로서 활약하던 전성기에 해당할 때이다. 또한 최언위가 최신지라는 이름으로 당 유학을 떠나던 시절, 그가 동행하였던 897년 입당 사절단의 공식 문서는 대부분 최치원이 작성하였다. 특히 “遺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이하 입조장으로 약칭)에 나오는 숙위학생의 대표자 崔愼之를 언급한 외교문서역시 최치원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두 사람이 함께 입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²²⁾ 그렇다면 최치원과 최언위는 각기 입당 사절과 숙위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같은 배를 타고 당으로 갔으며, 사제지간으로서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겠다. 당 유학을 준비하던 당시의 최언위로서 당에서 귀국한 최치원의 지도는 무엇보다 긴요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師資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즉 두 사람은 사제지간으로서, 최언위는 스승 최치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21) 최영성(1987), 『주해 사산비명』, 아세아문화사, 99면, 주67 ; 한국 고대사회연구소 편(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25면, 주 111 ; 이현숙(1995), 「나말여초 최언위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이화사학연구』 22집, 18면 ; 특히 최영성(1999), 『역주 최치원문집 2:고운문집』, 아세아문화사, 44면에서 『해동금석원』에 소재한 「낭혜화상비문」 중 “巨筏憲已于從弟....” 해석에 관한 부분은 무염과 최언위가 종형제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22) 「遺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역주 최치원문집』 2, 160면.

(2) 조기 유학생과 만학도

최치원은 869년(경문왕 8)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당 유학을 떠났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최언위는 30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당하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입당 이전에 어디서 수학을 하였을까? 당과 일본의 율령 중 學令에 따르면, 국가의 공교육 기관인 國子監(唐) 또는 國學(일본)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은 대체적으로 14-19세(唐), 13-16세(일본)으로 규정되어 있다.²³⁾ 신라 중대의 경우, 國學에 입학 할 수 있는 연령은 대략 15-21세까지로 추정되고 있다.²⁴⁾

이렇게 볼 때, 최치원은 신라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집안에서 행해지는 사교육만 받고, 당 유학을 떠났을 것이다. 최치원은 상선을 타고 당으로 갔다는 점에서 사비 유학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²⁵⁾ 만일 신라 정부의 학비 보조를 받는 관비 유학생이라고 파악할 경우, 在唐 10년 기한이 지나면 신라로 강제 송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만기 학생에 대한 강제 송환은 840년(문성왕 2) 105명, 888년(진성 2) 金紹游 등, 897년 金茂先·陽潁·崔渙·崔光裕 등의 경우가 확인된다. 이른바 숙위학생이었던 관비 유학생은 신라와 당 정부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처지가 될 수 없었다. 870년(경문왕 9) 당에 유학을 떠나는 李同 등 학생 3명에게 경문왕이 購書料 명목으로 銀 3백냥을 지급한 예에서 보듯이,²⁶⁾ 신라 정부는 이들에게 일정한 보조를 하였다. 당

23) 仁井田陞 著, 地田溫 編(1999), 『唐令拾遺補』(東京:東京大出版會), 學令, 1045-1046면.

24) 이희관(1998), 「신라 중대의 국학과 국학생」,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제19집, 동국대학교, 106-108면.

25) 이병도(1959),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672면 ; 김세윤(1982), 「신라 하대 도당유학생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37, 153-159면 ; 최경숙(1981), 「최치원연구」, 『부산사학』 5, 13-14면 ; 최영성(1990), 『최치원의 사상 연구』 아세아문화사, 8면.

은 京兆府에서 양식과 의복을 제공하였다.²⁷⁾ 따라서 이들 관비 유학생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만큼 운신의 폭도 제한되어 있었다.

최치원이 16년간 당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규정에서 자유로운 사비 유학생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²⁸⁾ 부 견일이 10년 안에 통과할 것을 요구한 것은 기한이 유한한 관비 유학생과 같은 각오로 공부하라는 의미로서, 10년 기한이 있는 관비 유학생이었다면 굳이 이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12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국가 주도하에 유학 보냈다고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당 국자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14-19세)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치원이 어린 나이로 사비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9세기 무렵 재당 신라인 사회가 발달하였던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838년에서 847년 사이에 중국에 체류하였던 일본 승려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통해, 양자강 양안과 淮水를 중심으로 新羅坊이라는 자치 지역이 있었고, 등주 문동현에 거주하는 신라인을 관할하는 勾當新羅所가 있을 정도로 재당 신라인 촌락이 번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엔닌은 여기에서 청해 진병마사를 역임하면서 등주를 왕래하던 崔暈十二郎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즉 그는 장보고가 846년(문성왕 8) 신라 조정에 의해 살해됨에 따라, 847년 7월 당 泗州 漣水縣 신라방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²⁹⁾ 최치원이 당에 유학 온 시기는 이로부터 불과 22년 뒤이다. 이 때도 재당 신라인 사회는 존재하였으므로, 당에 거주하는 최치원의 인척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아직 국자감에 입학할 수 없었던 어린 나이였던 최치원은 재당 신라인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자감 입학을 준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6) 『삼국사기』 권11, 경문왕 9년 7월.

27) 「遺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역주 최치원문집』 2, 160면.

28) 김세운(1982), 앞 글, 153-159면.

29) 圓仁 著, 申福龍 譯(1991), 『入唐求法巡禮行記』, 정신세계사, 288면.

당의 국자감은 西京(장안)과 東京(낙양), 두 곳에 있었다.³⁰⁾ “책을 짊어지고 온 자제들이 양경에 나누어 있었다”고 한 최치원의 서술처럼,³¹⁾ 그 역시 두 곳 가운데 한 지역의 국자감에서 수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18세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고, 사제 또는 동학간의 인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국자감에서의 수학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치원이 조기 유학생이었던 것에 반해, 최언위는 만학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897년(효공왕 1) 입당사 金頴과 동행하는 숙위학생으로 기재되어있는 崔愼之는 최언위의 초명과 동일하다.³²⁾ 같은 시기에 활약한 인물이 사용한 이름이 같다면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일 『고려사』 최언위전의 기록대로 그가 18세인 885년(헌강왕 11)에 입당하여, 906년 설정규의 고시하에 빈공급제 하였다면, 무려 21년 만에 과거에 합격한 것이 된다. 따라서 최언위는 당시 최신지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30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당하였다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 당 국자감에 유학 온 외국인으로서 신라 출신만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 태종대에 주변국에서 온 유학생이 8천여 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³³⁾ 당시 상황을 ‘지금 국자감 안에는 신라의 馬道만 있고, 四門館의 北廊에 있는 저 어리석은 여러 번방들은 적적하게 끊어졌다’³⁴⁾라고 표현한 것에서 신라인의 지

30) 당은 662년 東都 낙양에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龍朔二年東都置國子監』, 『通典』 권173, 國子監.

31) 是是箠笈之子, 分在兩京, 憧憧往來, 多多益辦.”, 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역주 최치원 전집』 2, 150면.

32) 『고려사』 권92, 「최언위전」.

33) “貞觀五年, 太宗數幸國學, 遂增築學舍千二百間, 國學太學四門亦增生員, 其書算各置博士, 凡三千二百六十員. 其屯營飛騎, 亦給博士授以經業, 無何. 高麗百濟新羅高昌吐蕃諸國酋長, 亦遣子弟請入, 國學之內八千餘人, 國學之盛近古未有.”, 『通典』 권53, 國子監.

34) 「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 『역주 최치원 전집』 2, 157면.

속적인 당 국자감 입학에 대한 최치원을 비롯한 신라인들의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다.

당 학령에 따르면, 입학 연령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재학할 수 있는 연령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신라 국학의 경우, 15세에서 30세까지라는 재학 연령 규정이 있으므로,³⁵⁾ 입당 유학 이전까지 최언위는 신라 국학에서 수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국학에서 재학할 수 있는 기간은 9년이였다. 그가 만일 15세에 입학하였다면, 24세 무렵이면 모든 과정이 끝났을 것이다. 능력에 비해 늦은 나이에 입당유학하게 된 원인은 당시 지방사회의 혼란으로 당으로 가는 뱃길이 상당 기간 막혔기 때문이다.³⁶⁾

전술한 바와 같이, 최치원과 최언위는 각기 입당 사절과 숙위학생이라는 신분으로 897년 같은 배를 타고 입당하였다. 최치원이 897년 작성한 「입조장」은 “숙위학생 최신지 등에게 전례에 따라 장안의 경조부에서 晝糧과 時服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최언위는 숙위학생으로서 장안의 국자감에서 수학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한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宿衛院’이라는 존재이다. 신라는 897년 발해가 신라보다 상석에 앉기를 청하였으나 당 조정이 이를 불허하였다는 사실을 장안에 소재한 숙위원에서 보낸 장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른바 신라와 발해간의 쟁장 사건이다. 이 보고문을 작성한 곳은 바로 ‘숙위원’이었다.³⁷⁾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에서 숙위라는 명목으로 파견된 왕족과 학생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본국에서 온 사절단을 영접 관리하고 당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본국에 송신하는 역할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장안 주재 신라대사관

35) 『삼국사기』 권38, 국학 ; 이희관(1998), 앞 글 참조.

36) 이현숙(1995), 앞 글, 20면 참조.

37) “臣得當蕃宿衛院狀報.”, 「謝不許北國居上表」, 『역주 최치원 전집』 2, 128면. 숙위원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유일하다.

격이었다고 파악된다. 이처럼 숙위학생에게는 각종 권리와 편의가 제공된 반면 의무와 통제 또한 부과되었다. 최언위는 국자감에 재학하는 동안 신라가 장안에서 운영하였던 숙위원의 통제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최치원과 최언위의 수학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가지게 된 학문적 토대를 비교할 수 있었다. 최치원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당으로 갔으므로, 곧 중국어에 숙달하여 중국식 경서 읽기와 시문 짓기에 능하였을 것이다. 이에 반해 최언위는 이미 후삼국 분열기를 맞이하여 당으로 가는 뱃길이 막혀 30세가 되어서야 당으로 떠날 수 있었다. 이는 신라어로 중국의 경전과 시문을 공부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문장 작성에 있어서 최치원이 도달하였던 경지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최치원의 문장은 우리 나라 변려문 가운데서 성운이 잘 맞기로 정평이 있는데, 대우가 잘 맞을 뿐 아니라 성운에 따른 리듬이 강하기 때문에 산문이면서 운문과 같은 색채를 띠기도 한다.³⁸⁾ 최언위의 입장에서 스승 최치원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결국 최언위는 관비 유학을 준비하던 중 후삼국 분열이라는 사회적 격변기를 맞이함에 따라, 만학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3) 빈공 급제와 당에서의 관직생활

최치원은 874년(경문 14) 입당한 지 6년만인 18세에 빈공과에 급제한다. 빈공과가 비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사과의 별시라 하더라도, 그 급제자는 한번에 2명 정도에 불과하였다.³⁹⁾ 더구나 나머지 한명은 발해인에게 할당되므로, 그 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신라 유학생이 된다는 의미도

38) 최영성(1999), 『최치원의 철학 사상 연구』, 성대 박사학위논문, 82면.

39) “靖恭崔侍郎，放賓貢兩人，以渤海烏昭度爲首。”，「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역주 최치원 전집』 2, 168면.

가졌다. 예부시랑 裴瓚이 진사과를 주관하였기에, 최치원은 그와는 座主門生의 관계를, 함께 합격한 진사급제자와는 同年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는 그가 당에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맥으로서 작용하였다. 그는 20세 무렵까지 2년간 낙양에서 지냈다. 대부분의 관비 유학생들이 급제 후 곧 신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에 비해, 그는 이미 자신에게 익숙한 당나라에서 계속 머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76년 그가 최초로 역임하였던 당나라 관직은 宣州 慄水縣尉였다. 비록 종9품 하계의 말직이었으나, 스스로의 표현처럼 녹봉은 넉넉하고 직책은 한 가하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직위였다.⁴⁰⁾ 큰 야망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유학왔던 그에게 종9품 하의 현위직은 미래가 없었다. 그가 입당 유학한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에 급제하여 江淮지방의 한 현령이 되는 것이었다.⁴¹⁾ 강희 연안 지역을 특별히 지목한 것은 이 지역이 활발한 무역거래 등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하였고, 전통적으로 신라인의 집단촌락 사회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諸州의 上縣令은 정6품 상계에 해당하는 지위로서, 빈공급제만으로는 무망하였다. 발전적 미래를 위해 그는 박학 궤사과를 준비하기로 하고 1년만에 현위직을 사임하였으나, 곧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高駘(821-887)의 막료생활을 하게 된다.⁴²⁾

그가 변진의 막료가 된 시기는 879년경 23세 무렵으로서, 고변의 전성기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진사과 동년인 고운의 천거가 큰 힘을 발휘하였다. 최치원은 879년 정월 경 고변의 종사관이 되었는데, 이듬해 황소 토벌에 종군한 공으로 7월 承務郎殿中侍御史內供奉賜緋銀魚袋의 관직을 받았다. 송무량은 종8품 하계에 해당하는 散官이며, 전중시어사는 종7품 하계에 해

40) “爾後授宣州慄水縣尉，祿厚官閒，飽食終日.” 『桂苑筆耕集』 序.

41) “本望止於榜尾科第，江淮一縣令耳.” 『桂苑筆耕集』 권18, 第二.

42) 이에 관한 당시 정황은 남동신(2002), 앞 글, 394-305면 참조.

당한다.⁴³⁾ 7품관이었던 그가 6품 이상의 직사관만이 할 수 있는 비은어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도사의 막료로서 지방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로서는 엄청난 관직이었기에 사양하는 장계까지 올렸으나,⁴⁴⁾ 칙지라는 미명하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평생 그의 자랑거리가 된다. 당시 번진의 절도관찰사는 ‘辟冢’라는 형식으로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官屬을 선발하였다. 특히 절도사는 군공이 있는 자신의 막료에게 중앙의 감찰직에 해당하는 어사대의 관직인 시어사(6품), 어사중승(5품) 등을 제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보여진다.⁴⁵⁾ 그의 실직은 도통순관이었다.

이에 비해 최언위는 당에서 아무런 관직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거니와, 귀국 후 그가 찬술한 비명에 당 관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유학한지 9년만인 906년 설정규가 고시하였던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이 때 발해재상 烏炤度의 아들 烏光贊보다 상위로 합격하여, 당시 사절로 당나라에 와 있던 오소도가 항의하였다. 그러나 당에서 최언위의 재주와 학식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신라인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⁴⁶⁾ 그가 아무런 관직을 받지 못한 것은 급제 다음해 907년 4월에 당이 망하였기 때문이다.

(4) 귀국 후 관료 생활

최치원은 884년 10월 양주를 출발하여 다음 해 3월 28세의 나이로 신라에 돌아왔다. 12세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16년간 당에서 지냈다면, 귀국

43) 이현숙(1992), 「신라말 어대제의 성립과 운용」, 『사학연구』 23·24합집, 31면.

44) 『桂苑筆耕集』 권18, 「謝職狀啓」.

45) “唐世節度觀察等使, 辟置官屬, 許理年轉入臺官, 至侍御事, 止其御使中丞, 須有軍功.”, 「唐憲衡使頭使下」, 『演繁露』 권6. 程大昌이 송 紹興 연간에 발간한 『연변로』는 당대의 사회와 풍습에 대해 좋은 자료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위의 것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6) 『고려사』 권92, 「최언위전」.

무렵 당나라 말은 유창하였던데 반해 신라 말은 상당히 어눌하였을 것이다. 그가 신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고향에 있는 근친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⁴⁷⁾ 최치원은 종제인 崔摯遠이 집안의 서신을 가지고 왔기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서신의 내용은 부친의 위독이나 사망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귀국 후 그가 헌강왕에게 올린 『계원필경집』 서문에 亡父라고 한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 견일은 885년 무렵 이미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서원이 집안의 편지를 가지고 일부러 당까지 최치원을 만나러 간 이유에는 최치원 집안에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부 肩逸의 위독이나 죽음 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는 “해도를 찾아서 영광되게 돌아감은 고금에 견줄 데 없으나, 또 연파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니, 떠나가나 머무르나 편안하기 어렵습니다”⁴⁸⁾라고 피력한 것처럼, 신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그에게는 집안의 급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당에 머무르는 것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신라로 돌아가려니 이 또한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가 원했던 바는 “오직 바라는 바는 잠깐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와서 모시어, 우러러 어지신 봉토에 의탁하여 영원히 비루한 자취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잠시만 아버이를 뵙고 돌아와 다시 고변 휘하에 머무르는 것이었다.⁴⁹⁾ 그러나 고국에 돌아와 아버지를 이어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최치원으로서 신라를 다시 떠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최서원은 ‘新羅國 入淮南使’로서 파견된 창부원외랑 김인규와 더불어 회

47) 남동신(2002), 앞 글, 310면에서 최치원의 귀국 동기는 觀親으로서 당으로의 귀환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귀국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8) “雖尋海島以榮歸，古今無比，且望烟波感泣，去住難安.” 「謝許歸觀啓」, 『桂苑筆耕集』 권20.

49) “唯願暫謀東返，迎待西來，仰託仁封，永安卑跡.”, 앞 글.

남에 오면서 錄事를 가탁하여 종형을 맞으러 왔다.⁵⁰⁾ 김인규가 신라로 돌아가려 하나 돌아갈 배를 마련하지 못하여 최치원 형제와 같이 가고자 청하였다는 사실은⁵¹⁾ 최치원의 귀환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즉 김인규와 최치원 형제는 각기 돌아가는 배편을 따로 구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별개의 귀환이었다. 회남 절도사의 막료 출신인 최치원은 쉽게 배편을 구하였으나, 신라 사신 김인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최치원과의 동행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고변은 신라왕에게 보내는 외교문서를 최치원 편에 주어 그의 권위를 높여주었다.

귀국 당시 그가 지닌 관직은 淮南新羅兼送國信等使 前道統巡官 承務朗 侍御使 內供奉 賜緋魚袋였다.⁵²⁾ 즉 당 중앙정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회남절도사 고변의 사신 자격이었다. 이에 비해 897년 7월 이후 당에 사절로 간 뒤의 관직을 보여주는 것으로, 봉암사 지증대사비에 ‘入朝賀正兼奉皇華等事 朝請大夫 前守兵部侍郎 充瑞書院學士 賜紫金魚袋’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는 당에서 조청대부의 문산계를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의 관직과 최언위의 918년경 관직이 ‘翰林學士 守兵部侍郎 知瑞書院學士 賜紫金魚袋’이었던 것을 비교해 보면, 병부시랑과 서서원학사를 역임하는 동일한 과정을 밟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도당 유학생 출신 문한 관료들은 귀국 후 신라에서 자삼층에 편제되었다는 사실을 최치원과 최언위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다.⁵³⁾

최치원은 898년(효공왕2)경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던 것으로 추정되고

50) “某堂弟棲遠，比將家信，迎接東歸，遂假新羅國入淮海使錄事職名.”，「謝賜弟棲園錢狀」，『桂苑筆耕集』 권20.

51) “昨以鄉使金仁圭員外，已臨去路，尙闕歸舟，懇求同行.”，「上太尉別紙」，『桂苑筆耕集』 권20.

52) 『桂苑筆耕集』 권20，「祭嶮山神文」.

53) 이현숙(1992)，앞 글 참조.

있다.⁵⁴⁾ 그렇다면 897년 사절의 임무는 하정사였으므로, 898년 정월까지 당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가야산해인사결계장기」 말미에 “時有唐乾寧五祀之陬月也”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글을 작성한 시기를 의미한다면, 898년(건녕 5년) 정월에 해인사를 위한 글을 썼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혹 그가 관직에서 은퇴하게 된 연유가 다시 당에 갔을 때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치원과 비교하여 유학이 늦었던 최언위는 귀국 역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는 909년(효공왕 13) 42세의 나이에 귀국하였다. 그렇다면 최언위는 효공왕 원년 신라를 떠나기까지 견훤과 궁예로 인하여 3국이 분열되는 과정을 보았고, 당에서는 최치원이 극렬히 비난하였던 황소집단의 후신인 朱全忠에 의해 당 昭宗이 살해되고 後梁으로 왕조가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최언위가 주로 활약한 시기는 박씨왕대였다. 그는 경명왕 초기 병부시랑과 집사시랑을 역임하였고 923년 이전 후량에 사신으로 파견된 뒤 집사시랑에 물러나 한림학사직만 지니고 있었다. 견훤에 의해 추대된 경순왕대에는 김씨로 왕통이 달라지고 그 정치세력 또한 바뀌었을 것이므로, 박씨왕대에 활약한 최언위는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924년 봉림사 진경대사비를 경명왕 대찬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 신라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최언위가 고려에서 역임한 관직을 살펴보면, 신라가 고려에 귀부 할 때 함께 개경으로 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고려에 귀부하여 936년경 개경의 영현인 여비현의 현령, 즉 여비현제치사가 되었다가, 다음 해 지원봉성사라는 문한직을 임시로 맡았다. 940년경에 가서야 지원봉성사가 되었다. 그런데 태조대의 문신 崔凝이 知元鳳省事 - 廣評郎中 - 內奉

54) 金重烈(1983), 「최치원 문학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34-35면 ; 최영성(1999), 앞 글, 24-27면 ; 남동신(2002), 앞 글, 317면.

卿의 순으로 승진하였다.⁵⁵⁾ 이로 미루어는 보건대, 지원봉성시는 卿급보다는 한단계 낮은 郎中급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언위가 고려 관계와 관직을 표기한 비명에 어대 표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어대제의 특징은 소정의 관계에 오르기까지 자신이 받은 어대의 종류를 관직명 뒤에 반드시 병기하는 것이다. 자금어대를 표기하는 계층은 관계 4품 이하로서 관직이 4품 이상인 자이다. 태상이란 관계는 4품에 해당하는 바, 4품 이상의 관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자금어대를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언위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언위는 신라의 시랑급 보다 한 단계 낮은 5품급 관직을 받아 丹衫層에 편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신라의 귀부와 함께 고려 관인사회로 진출하였기에 받았던 당연한 대접으로 보인다.⁵⁶⁾

(5) 말년과 후손

최치원이 해인사에서 불우한 은거 생활로 50대에 생을 마친 것에 비해, 최언위는 고려의 문신관료로서 77세까지 천수를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화려한 문필 생활을 영위하였다. 특히 최치원은 말년에 焚身을 생각할 정도로 종창과 관절염 등의 병마에 시달렸는데,⁵⁷⁾ 결국 세상과 불화한 채로 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그는 하정사 김영과 숙위학생 최언위 등과 함께 당에 다녀온 다음 해 898년 관직에서 은퇴한 뒤, 근 10여년간 해인사에 은거한 것이 확인된다. 908년(효공왕 8) 52세에 지은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登樓記」가 남아 있는 마지막 글이다. 따라서 대략 그 이후 어느 시기에 삶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55) 『고려사』 권92, 「崔凝傳」.

56) 이에 관한 자세한 논증은 이현숙(1995), 앞 글, 24-27면 참조.

57) 「法藏和尚傳 後序」, 『역주 최치원 전집』 2, 358-360면 ; 최영성(1999), 앞 글, 33면.

『삼국사기』에 의하면, 최치원은 은거 후 태조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鷄林(신라)은 黃葉이고 鵲嶺(고려)은 靑松”이라는 글을 은밀히 태조에게 보내어 密贊肇業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나말여초 당시에 유행하던 참언을 최치원의 문인이 가탁하여, 고려에서 최치원을 추송할 근거를 만들었다는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⁵⁸⁾ 만일 그가 밀찬 조업을 하였다면, 고려 태조대에 이미 그의 자손들 가운데 현달한 자가 있었을 것이다. 사후 170여년이 지난 1074년(문종 28)에 이르러서야 그의 5대손 崔善之에게 미관말직인 都染晡史를 제수하였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종대 경주계문신에 의해 최치원을 문묘에 배향하는 등 대대적인 선양작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였다고 파악된다. 한편 이규보와 절친하였던 敦裕禪師는 최치원의 10세손이었다고 한다.⁵⁹⁾ 이로 미루어 보건대, 최치원의 자손들은 고려에 와서 출세와 무관한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최언위는 신라에 이어 고려에서도 仕宦하였다. 최언위가 경주에서 개경으로 근거지를 옮기자, 태자 사부로 임명되고 문필에 관한 임무를 맡았다. 고려 왕실이 새로 지은 궁원의 편액과 이름이 모두 그가 지은 것이었으며, 왕공 귀족들이 모두 다 그에게 물리었다고 한다. 최언위는 당대에 이름을 떨친 유명한 문장가로서, 고려에서 환대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신라 遺臣이었기에, 고려 관인사회에서 자삼층이 아닌 단삼층에 편제되었다. 고려가 그에게 필요로 한 것은 그의 문장력과 당대 대표적 지식인이라는 상징성이었다고 여겨진다. 궁극적으로 모든 정치적 활동은 차단 당한 상태에서 태자를 위시하여 왕공 귀족들에게 학문을 가르치

58) 이에 관한 논의는 김창겸(2001), 「고운 최치원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주류성, 203-207면 참조.

59) “東海孤雲十世孫, 文章猶有祖風存, …”, 『東國李相國集』 권17, 「次韻和西伯寺住老敦裕師見寄二首」.

는 교수 또는 어용 문장가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파악된다. 그 또한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세상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등 처세를 잘하여, 관후하다는 후세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대가로 자신의 후손들은 고려 왕조에서 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언위는 고려 조정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光胤, 行歸, 光遠, 行宗 등 4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을 중국의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 유학을 보냈다. 맏아들 광윤은 후에 유학가서 빈공진사가 되었는데, 거란에 포로가 되어 거란의 조정에 사환하였다. 그는 정종대 거란의 사절이 되어 고려로 와서 거란이 앞으로 침입할 것을 제보하였다. 그 뒤 광윤의 행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란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생을 마친 듯하다. 行歸는 오월에 유학하고 돌아와 광종의 幸臣이 되었다. 광원은 광종대 비서소감을 지냈다.⁶⁰⁾

특히 행귀는 균여의 향가 「보현십원가」를 한역하는 등, 均如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967년(광종 18)경 한림학사 內議承旨를 겸하고 있어 광종의 측근으로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開寶 연간(968-975) 어느 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였다.⁶¹⁾ 행귀의 伏誅는 최언위 집안의 큰 위기였을 것이다. 기재 순서로 보아 그는 광윤에 이어 둘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남 광윤이 고려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란에서 생을 마쳤다면, 최언위의 글을 포함한 중요한 유산은 행귀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최언위의 글이 모두 민멸되어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최행귀가 복주되어 집안이 풍비박산 되는 과정에서 최언위가 남긴 글이 민멸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라에서 작성한 글 가운데 고려의 이해와 맞지 않는 내용의 것은 최언위 자신이 없애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

60) 『고려사』 권92, 「최언위전」.

61) 최행귀가 복주된 원인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런데 광종이 균여를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균여와 친밀한 최행귀가 복주당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김창현(2003), 『광종의 제국』, 푸른 역사, 310-313면.

각한다. 고려 조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 필화로 번질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최언위와 그 자손들이 없애버렸을 수도 있다. 고려 초 귀화한 신라 계에 대해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최언위의 문장은 최행귀가 역적으로 몰려 살해당하면서 완전히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광원의 아들 沆(971-1024)은 991년(성종 10) 봄 20세의 나이로 급제하였다. 그가 태어날 무렵 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집안에 변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급제를 통하여 재기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종을 추대한 공로로 공신이 된 그는 최치원과 설총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추진하여 고려의 문화적 전통을 신라에서 찾도록 하였다. 요컨대 최언위 집안은 손자 대에 가서 다시 번창해졌으나, 그의 문화적 유산은 아들 최행귀의 복주로 인해 이미 민멸되었기에 전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최언위가 생전에 누렸던 문명은 당대로 끝나버렸던 것으로 파악된다.⁶²⁾

2) 찬술 비명 비교

최치원은 신라말 문장가로서 문집이 현전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게다가 이른바 “사산비명”까지 전하고 있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다. 이에 비해 최언위는 시 한편 전하지 않고 오로지 그가 왕명으로 찬술한 부도탑비명만이 전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은 나말여초 비문 찬술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문장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성격의 글을 어떻게 접근하여 서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치원과 최언위가 각기 비명을 어떻게 서술해 나갔는지를 고찰해 봄으

62) 『고려사』 권92. 「최언위전」.

로써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나말여초에 선사 부도탑비명이 이처럼 많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신라 하대 선종의 융성과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자 노력하였던 국가 권력이 있었다. 특히 신라 선종 사원의 규모가 커지는 9세기 후반, 열반한 스승을 추모하는 부도탑비명을 당에서 사 가지고 온 사례가 확인된다. 즉 870년 신라의 弘惠上人은 유명한 당나라 시인 皮日休에게 영취산 주선사의 비문 2천여 자를 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왔으니, 다음의 시에서 알 수 있다.

三十麻衣弄渚禽	삼십년 바닷새와 장난하였더니
豈知名字徹鷄林	내 이름이 계림에까지 알려졌을 줄 어찌 알았으리.
勒銘雖卽多遺草	특명은 비록 기초해 놓은 것 많으나
越海還能抵萬金	바다 건너서는 도리어 만금에 이르리라.
鯨鬣曉掀峯正燒	고래 지느러미 솟구치는 새벽 봉우리 정히 불타오르고
鼉睛夜沒島還陰	자라 눈동자 가라 앉은 밤엔 섬 다시 어두워지네.
二千餘字終天別	이천여 자로 영원히 이별 맺고서
東望辰韓淚灑襟	동으로 진한 바라보며 눈물로 옷깃을 적신다오. ⁶³⁾

서른이 넘어서 진사시에 합격한 피일휴(834?-883?)는 자신의 문명이 신라에까지 알려져, 비명 청탁을 위해 바다 건너 온 신라 승려의 부탁받고 2천여 자로 써주었는데, 이것이 바다 건너 신라에 가면 더 비싼 값이 되리라는 내용이다. 위 시에서 피일휴는 미리 기초해 놓은 문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당시 승려의 비명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돈을 받았던 것이 고마웠던지, 그는 신라승려 흥혜상인에게

63) 「庚寅歲十一月新羅弘惠上人與本國同書請日休爲靈鷲山周禪師碑將還以詩送之」, 『全唐詩』 권614. ; 김보경(1994), 「나말여초 漢詩 再考」, 『東洋古典研究』 3집, 93면.

이별시까지 지어주었다. 이처럼 신라 승려가 거금을 들여 당에까지 와서 스승의 비명을 지어갔던 사실에서, 신라 선종 사원에서 비문 수요가 많았지만 신라 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가능하였는데, 나말여초에 세력을 넓혀가던 선종 사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라 국왕은 천화한 선종 승려에게 부도탑비명을 내리고 문한직 관료에게 비명을 짓도록 하였던 것이다. 고려 태조 역시 통일 후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선종 승려들의 사후, 부도탑비 건립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지방 사원 및 이들과 연결된 지방민에게 자신에 의한 통일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의도도 내포되었다.⁶⁴⁾ 당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빈공급제자이며 문한관이었던 두 사람이 나말여초의 부도탑비명을 대부분 찬술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비록 왕명이긴 하였으나 피일휴처럼 이들도 사원으로부터 상당한 사례를 받았을 것이다.

현전하는 최치원의 비명은 4개이며, 최언위는 13개라고 추산된다. 이 가운데 최언위의 비문으로 현전하는 것들을 작성시기와 함께 추론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⁶⁵⁾

신라

918년경 태자사 낭공대사비

923년경 흥녕사 징효대사비

924년경 봉림사 진경대사비(경명왕 御製)

고려

937년경 서운사 요오화상비

광조사 진철대사비

938년경 보리사 대경대사비

64) 김두진(1981), 「왕건의 승려 결합과 그 의도」, 『한국학논총』 제4집(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참조.

65) 이현숙(1995), 앞 글, 15면의 <표2 최언위 찬술 탑비명>에 의거하였다.

- 939년경 비로암 진공대사비
- 940년경 지장선원 낭공대사비
무위사 선각대사비
- 941년경 흥법사 진공대사비(태조 御製)
경청선원 자적선사비
- 943년경 정토사 법경대사비
오룡사 법경대사비

최언위는 신라에서 3개, 고려에서 10개를 찬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나말여초 선사부도탑비명의 찬술자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작성한 비명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해 보기로 하겠다.

최치원은 자신의 비문이 중국에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의식 하에 찬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진성여왕의 명으로 낭혜화상의 비문을 지을 때 그의 수제자가 와서 글을 재촉하며, “만약 중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혹 비문을 소매에 넣어가지고 떠나, 중국 사람들의 비웃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매우 다행일까 합니다. 내가 감히 그 이상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대는 귀찮음을 꺼리지 마십시오”⁶⁶⁾라고 한 사실을 적기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낭혜의 제자는 최치원이 문장을 지을 때 중국 문사들을 의식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좋은 글을 쓰도록 유도하고자 하였고, 최치원 자신도 이를 비문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중국 문사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파악된다. 그가 비문을 작성하면서 중국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몇몇 주석을 직접 달았던 사실도 이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당의 비문은 신라에도 읽혀지고 있었는데, 이는 신라의 어느 승려가 당국자박사 劉軻가 지은 石頭 希遷禪師(700-791)의 비문을 바랑에 가지고

66) 성주사 낭혜화상비, 『역주 최치원전집』 1, 107면.

귀국하는 것을 읊은 시가 남아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⁶⁷⁾ 당 선사비문이 신라에 流轉되는 것처럼, 언젠가 자신의 문장도 당에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최치원은 의식하였을 것이다.

그가 비문에 당의 관직을 주로 사용하였던 것도 바로 여기에 연유한다고 파악된다. 890년경 진성여왕의 명으로 지은 낭혜화상비에서 “淮南入本國 送信詔書等使 前東面都統巡官 承務朗 侍御使 內供奉 賜紫金魚袋”라는 긴 직함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紫金魚袋는 신라의 것이 분명하다. 이는 4품 이상의 관직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무랑(정8 상)과 전중시어사(종7품 하)의 관직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는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을 병용하여 사용하였던 당 번진의 관직체계처럼, 당과 신라의 관직 역시 혼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파악된다.

이처럼 중국과 신라의 직함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최언위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는 고려에서도 사환하였기에, 경우에 따라서 중국과 고려, 신라의 관직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조합하여 표기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940년경에 찬술한 「낭원대사탑비」에 기재된 그의 관직을 들 수 있다. 즉 그는 大相(고려 관계) 檢校尙書(당의 관직) 前守執事侍郎(신라 관직) 左僕射兼御使大夫(당의 관직) 上主國(훈직) 知元鳳省使(고려 관직) 賜紫金魚袋(신라 어대)라는 식으로 혼용하고 있다. 최언위 이래 고려의 문사들이 지은 비문에 나타나는 관직에는 고려의 것만이 표기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두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에서 유학하고 급제한 이들 두 사람에게 중국의 것과 신라, 고려의 관직은 자기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 모두 혼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신라와 고려도 중국의 제후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 문사를 의식하고 문장을 기술하는 태도는 967년(광종 18) 최언위

67) 貫休 撰, 「送新羅納僧」, 『全唐詩』 권836 ; 김보경(1994), 앞 글, 90면.

의 아들 崔行歸가 均如의 향가 「普賢十願歌」를 한역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翰林學士 內議丞旨를 역임한 최행귀는 한역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그러나 한시는 당의 말로 엮어서 다섯 자, 일곱 자로 다듬고, 향가는 우리 말로 배열해서 3句6名으로 다듬는다. 그 소리를 가지고 논한다면 參星과 商星이 동서로 나뉘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文理를 가지고 말한다면, 창과 방패가 어는 것이 강하고 약한지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서로 시의 수준을 놓고 자랑한다고 하나, 함께 義海에 돌아가기는 마찬가지로 인정한만한 것으로, 각각 제 나름의 구실을 하고 있으니 어찌 잘된 일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허나 한스러운 것은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고 벼슬한 선비들은 한시를 이해하여 읊조리는데, 저 중국의 박학하고 덕망있는 선비들은 우리나라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梁宋의 뛰어난 글이 동쪽으로 오는 배편에 자주 전해오고, 신라의 훌륭한 글이 서쪽으로 가는 사신 편에 전해질 길 바란다고 해도,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또한 답답하고 한탄스러움을 어쩔 수 없다. 68)

신라의 鄉歌와 唐詩는 聲韻으로 볼 때, 동쪽과 서쪽에 각각 떠서 만날 일이 없는 參星과 商星 같지만, 뜻으로 볼 때 신라의 향가는 당시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대등한 것이라고 최행귀는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것은 우리의 학자들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것 향가는 중국에서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한역하여 중국에 알리고자 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의 한역 작업을 통해, 과연 균여의 「보현십원가」는 중국에 전해졌다. 송나라 君臣이

68) “然而詩構唐辭，磨琢於五言七字，歌排鄉語，切磋於三句六名，論聲則隔若參商，東西易辨，據理則敵如矛楯，強弱亂分。雖云對銜詞鋒，足認同歸義解，各得其所，于何不臧。以所恨者，我邦之才子名公，解吟唐什，彼土之弘儒碩德，莫解鄉謠。… (중략)… 使梁宋珠璣，數托東流之水，秦韓錦繡，希隨西傳之星，其在扃通，亦堪嗟痛。” 『均如傳』 第8 譯歌現德分；崔喆，安大會 공역(1986), 『譯註 均如傳』, 새문안사, 58-61면. 균여전은 1075년(문종 29) 前進士 赫連挺이 지었다.

보고서 사신을 보내어 균여를 만나보고자 하였다고 한다.⁶⁹⁾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의 문사를 의식한 글쓰기는 나말여초 문장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치원의 글이 일찍부터 유명해 진 원인에는 자신의 글을 문집으로 만들어 세간에 유포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당에서 『중산복궤집』을 만들었고, 신라에 돌아와서는 『계원필경집』을 헌강왕에게 헌정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문장을 정리하여 문집으로 엮고, 이를 토대로 벼슬을 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당과 신라를 위시하여 일본에까지 그의 문장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최치원과 최언위가 비문을 작성할 때 가장 대비되는 점은 문장 속에서 자신에 관한 기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최치원은 비문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언위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치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① 다시 생각해보건대 중국에 들어가 배운 것은 대사나 내가 피차 다름이 없건만, 스승으로 추앙을 받는 이는 누구이며, 일꾼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찌하여 心學者는 높고 口學者는 수고롭단 말인가. 그러므로 옛날의 군자는 학문하는 것을 삼가서 하였다. 그러나 저 심학자가 덕을 세웠다면 구학자는 말을 남겼을 것이니, 저 덕이란 것도 말에 의지하고서야 일컬어질 것이요, 이 말이란 것도 혹 덕에 기대어야 썩지 않고 오래도록 전할 것이다.⁷⁰⁾
- ② 국인 가운데 儒道를 중매로 하여 황제의 나라에 시집가서 아름을 桂輪에 높이 걸고 관직이 柱下史에 오른 이가 있어 최치원이라고 하는데, 唐帝의 조서를 두 손으로 받들고 淮王(高駘)이 준 依段을 함께 가져왔으니, 비록 그 영광이 봉쇄의 擧止에 비하기 부끄러우나, 학이 돌아온 것엔 자못 비길

69) “一本乃傳於西國，宋朝君臣見之，... 遂使禮使.”, 『역주 균여전』, 72-73면.

70) 「성주사 낭혜화상비」, 『역주 최치원전집』 1, 105면.

만 하리라.⁷¹⁾

③ 진실로 언론에 썩 능하거나 글재주가 있지 않으면 어찌 그 사이에 文辭를 엮어 맞추어 후세에 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⁷²⁾

위의 자료 ①에서, 그는 낭혜의 비문을 지으라는 진성여왕의 명령에 대해, 당에 유학한 것은 낭혜와 자신이 마찬가지로 낭혜의 업적도 자신의 문장에 의지하여야만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②에서 자신의 급제와 당에서의 관직 생활, 황제의 사신 자격으로 신라에 온 것을 지적하며, 자신의 뛰어난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영광이 봉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학에는 견줄 만하다며 자신감과 기염을 토로하였다. ③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선사의 업적도 자신의 글재주로 인해 후세에 전달된다며, 문장가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최치원이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최언위는 늘 비문의 말미에 간략히 겸사를 표하며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 태조가 법경대사의 비문을 지으라는 지시에 대해,

① 사양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거칠게 문장을 만들었다. (결락) ... 오로지 이글을 지어 비록 기리고 칭찬하는 아름다움을 모았으나, 그 전하는 바를 그대로 쓸 뿐이니, 우아하고 아름답게 하는 기술이 없음을 한스럽게 여긴다.⁷³⁾

라고 하여, 최치원이 보여준 문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기백은 찾기 어렵

71) 「봉암사 지증대사비」, 위 책, 334면.

72) 「봉암사 지증대사비」, 위 책, 298면.

73) 「정토사 법경대사비」, 『역주 나말여초 금석문』 하, 175면.

다. 또한 그는 비문 찬술의 동기를 국왕과 문인에 대한 위로에 두었는데, 이는 그만이 갖는 독특한 발상법이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바라는 바는 억지로 붓을 잡고 비문을 지음으로써, 國主의 은혜를 갚고 아울러 門人의 뜻을 위로하고자 한다.⁷⁴⁾
- ② 오직 두터운 뜻을 진술하여 스님의 공적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끝으로 임금께서 이를 읽어보시어 돌아가신 스님에 대한 유한을 잊으시고, 아울러 크고 우뚝한 이 비가 문인들이 스승을 잃은 근심과 슬픔을 위로하길 바란다.⁷⁵⁾
- ③ 억지로 붓을 잡아 대군께서 불법을 숭상하신 연유를 밝히며, 오로지 선명한 문장을 지어 문인들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정성을 위로한다.⁷⁶⁾
- ④ 일찍이 스님으로부터 자비하신 가르침을 입었으며 宗盟으로써 임금의 보살핌을 입은 것에 대해 보답하는 뜻으로 붓을 잡아 정성을 다하였으니 크게 부끄러움이 없다.⁷⁷⁾

그가 비문을 작성한 이유도 국왕과 선사의 문인들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에서, 철저히 상향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검사처럼 최언위가 고려에서 지은 비문에는 상투적이고 정형화된 표현이 적지 않게 나온다. 즉 진공대사 충담이 개경에 온 것을 마룩금이 밝게 빛나고 삼천년만에 한 번씩 핀다는 우담발화의 꽃이 핀 것 같다며 “不唯摩勒重敷, 兼亦優曇現”이라고 표현하였는데, 2년 뒤에 작성된 정토사 법경대사비에서도 법경대사가 중국에서 돌아온 것을 이와 비슷하게 “唯知優曇一現, 摩勒

74) 「홍녕사 징효대사비」, 위 책, 220면.
 75) 「광조사 진철대사비」, 앞 책, 36면.
 76) 「무위사 선각대사비」, 앞 책, 243면.
 77) 「태자사 낭공대사비」, 앞 책, 287면.

重榮”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문하제자가 많은 것을 “遠方來者, 朝三暮四, 雨驟風馳, 桃李無言, 稻麻成列”(징효대사비), “其衆如麻, 其門如市”(진철대사비), “桃李成溪 其門如市, 朝三暮四”(대경대사비), “來者如雲, 學如人霧”(진공대사비), “來者如雲, 納之四海, 稻麻有列, 桃李成溪”(법경대사비)라고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그가 매년 한두 개의 비문을 지어야 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최치원이 의례적인 표현으로 비문을 작성하는 태도를 비난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최언위가 935년 고려에 귀부해서 944년 죽기 전까지 거의 매해 태조의 명으로 비문을 지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비문만 작성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비문 하나 짓는 데 8년간의 공덕을 들이는 최치원에 비해,⁷⁸⁾ 그의 문장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⁷⁹⁾

한편 최치원은 자신을 腐儒·末儒라고 표현하며 끝까지 儒者를 자처하였지만, 최언위는 비문에서 자신을 선사들의 문인 또는 제자라고 표현하였다. 최치원이 불교 선승들의 비문을 작성하면서 유불이 대등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최언위는 불교가 다른 것보다 수승하다고 여겼다. 이는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다.

① 옛날에 육신보살인 惠可선사는 노자가 천축에서 탄생한 우리 스승의 이야

78) 지증대사비를 지을 때 그 문인이 와서 8년간 글을 지어달라고 재촉하였다고 한다. 「봉암사 지증대사비」, 『역주 최치원전집』 1, 336면.

79) 특히 그가 찬술한 13개의 비문 가운데 937년에 작성한 광조사 진철대사비와 938년의 「보리사 대경대사비」가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였다. 최언위는 두 비문을 불과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태조 왕건의 숭불정책이 양 무제 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不可同年而語哉”라고 양 비문에서 똑 같이 서술하였으며, 두 선사의 열반 후 상황을 “日慘風悲, 雲愁水咽”라고 동일하게 표현 등 유사한 서술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최언위는 피일휴처럼 몇 개의 모범 문장을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비문을 양산하였던 것이다.

기를 했고, 공자도 서방의 석가는 대성인이라고 찬양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다.⁸⁰⁾

- ② 비록 (공자는) 생각하고 (노자는 생각하기를) 잊었다고 하나 감히 이치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이것은 영역 안의 가르침이요, 사방 안의 말이니, 어찌 正覺의 도를 이루어 인심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眞如의性が 청정하여 삼매에 달리 있다는 것과 같겠는가!⁸¹⁾

최언위는 노자와 공자도 찬양하는 석가의 불도가 더 우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자와 노자의 도보다 불도가 수승하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는 그가 상당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어떻게 보면, 최언위는 최치원 보다 더욱 어려운 난세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최언위에게는 최치원처럼 은거할 자유마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신라 최고의 문장가로서 활약하던 그의 명성은 고려에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6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사환하였다고 파악된다. 두 왕조에서 사환해야 하는 지식인의 고민을 최언위는 불교에 심취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격변기를 살아야 했던 그의 고민은 왕건에 대한 이중적인 서술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두 왕조를 섬겨야 하는 그에게 고려 태조는 삼한을 통일한 위대한 군주임과 동시에 신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그는 태조를 이상적인 군왕으로 칭송하는 동시에, 은밀히 魏(220-265) 황제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 ① 공손히 천명을 받들어 행하니 갑옷을 버리고 묶은 것을 풀어 손으로는 양을 이끌었다. 이는 신령스러운 위엄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니, 잠시 神用을 수

80) 「광조사 진철대사비」, 『역주 나말여초 금석문』 하, 12면.

81) 「정토사 법경대사비」, 앞 책, 149-150면.

고롭게 하여 먼저 원흥의 악당을 제거한 것은 마치 위나라 황제가 촉나라를 격멸한 것과 같다고 하겠다. 82)

- ② 나라가 어지럽기는 유비와 조조의 시대보다 심하였고, 위로 聖主가 없음은 고슴도치들이 모인 것과 같았으며, 아래로 용렬한 무리들만 모여 악육강식의 어지러움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83)

위의 자료를 통해, 최언위는 후삼국 분열기를 유비와 조조의 시대로, 고려 태조를 위 황제에 비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魏는 건국 45년만에 망하였기 때문에, 새로 창업한 고려 왕조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었다. 이처럼 최언위가 작성한 대부분의 비문에서는 태조를 성군으로 극찬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은미하게 태조를 폄하시키는 표현을 구사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84)

지금까지 비문에 나타나는 표현을 분석해 봄으로써,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다. 최치원은 신라에 돌아와서 “행세하기가 자못 곤란하고 걸핏하면 비난을 받았다”⁸⁵⁾는 평가를 받았다. 즉 최치원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드러내기 좋아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최언위는 성격이 관후하다는 평을 받았는데,⁸⁶⁾ 이는 비문 찬술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겠다.

최치원의 문장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원인에는 그가 당이나 신라에서 관직을 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行卷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

82) 서운사 요오화상비, 위 책, 45면.

83) 무위사 선각대사비, 위 책, 237면.

84) 이현숙(1995), 앞 글, 32-33면.

85) “致遠自西事大唐，東歸故國，皆曹亂世，屯遭蹇連，動輒得咎.” 『삼국사기』 권46, 「최치원열전」.

86) “性寬厚” 『고려사』 권92 「최언위열전」 ; “稟性寬厚”, 『고려사절요』 권2, 해종 원년 겨울 12월.

적할 수 있다. 최치원은 당에서 고변의 막료가 되기 위해 雜篇章 5軸과 陳情詩 100편을 만들어 바쳤다. 신라로 돌아와 당에서 작성한 문장을 『계원 필경집』으로 엮은 것 또한 헌강왕에게 벼슬을 구하는 하나의 행위였다고 파악된다. 그는 입신 출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문장을 만들었고, 이를 스스로 정리하여 문집으로 만들었다. 그의 문하 제자로서 고려에 벼슬하여 고관에 이른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기록으로 보건대, 이들 제자에 의해 그의 문장은 고려에도 전해졌다고 파악된다. 그 대표적인 제자 중의 하나가 바로 최언위일 것이다.

4. 맺음말

문장의 우열을 논할 때, 勝者獨食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최치원의 글이 최언위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하더라도, 최언위의 문장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다. 최언위가 한국문학사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돌로 전하는 부도탑비명 이외에 전해지는 문장이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신지·최인연·최언위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세기 이후였다.

지금까지 최치원과 최언위에 관한 후대의 인식과 남아있는 비명을 비교해 봄으로써, 최치원이 한국 문학의 비조로 자리잡게 된 원인과 최언위가 철저히 무시되었던 연유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치원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당 유학을 떠났고, 최언위는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만학을 하였기에, 두 사람이 도달할 수 있었던 문장의

경지가 달랐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찬술한 비명 비교를 통해서, 최치원의 문장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 안될 것이 있으니, 최치원의 글은 주로 젊은 시절 전성기에 작성되어 문장에 혈기와 의욕이 넘치고 있으나, 현전하는 최언위의 글은 주로 70을 전후로 하여 작성된지라 노쇠한 노인의 체취가 가득 담겨있다는 점이다.

둘째, 최치원의 글은 문집의 형태로 정리되어 유전되었고, 최언위는 그 자취가 일찍부터 민멸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최치원의 문장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원인에는 그가 당이나 신라에서 관직을 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行卷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입신 출사를 위하여 자신의 문장을 스스로 정리하여 문집으로 만들었고, 이를 유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최언위의 문장이 철저히 민멸되었던 원인은 그가 두 왕조에서 사환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 고려 초 신라 문신에 대한 경계와 감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고려 조정의 비위를 건드릴만한 글들은 유포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최언위 자신에 의해 파괴되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최언위의 아들 최행귀가 광종대 역신으로 몰려 복주되었던 사건은 최언위의 문장이 철저히 민멸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즉 10세기 중엽 이미 그의 글은 전해지지 않았다.

넷째, 최치원이 동국문장의 비조로서 명성을 얻게 된 배경에는 『삼국사기』의 평가가 절대적이었고, 이는 『신당서』 예문지에 최치원의 『계원필경집』과 『사육문』이 소개되었던 연유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신당서』 예문지에 최치원의 문집이 기재되면서, 최치원의 문장은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송기와 구양수를 중심으로한 송초 문신들의 최치원 재평가 작업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송문총목』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치원의 사육문은 唐代 최고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이는 이후 王

應麟의 『玉海』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송대 문인의 최치원에 대한 평가는 고려의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이러한 비교 고찰 과정에서 신라 宿衛院의 존재를 새롭게 밝혀 볼 수 있었다. 숙위원은 당의 수도 장안에 주재하는 신라 대사관 격으로, 당에 파견된 신라 사절단 및 숙위와 숙위학생과 관계된 업무와 함께 장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치적 동향을 본국에 알리는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요컨대 최치원은 일찍 출세하였지만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맞아 은거를 택함으로써, 집안은 몰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고려 왕조에 사환한 최언위의 직계 자손은 현달을 거듭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의 이해에 위배되는 최언위의 각종 글들은 파괴되었으며, 고려를 위하여 지은 글조차 아들 행귀가 정치적으로 제거당하면서 민멸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말여초의 대문장가로서 누렸던 최언위의 지위는 전해지는 글이 없었기에, 고려 중기 이후 망실되기에 이른다. 최치원은 비록 불우한 말년을 보냈지만, 고려에 사환하지 않았기에 문장 내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없었다. 후대 문인들에 의해 밀찬조업설이 만들어지면서 고려 왕조와의 정치적 관계까지 해결되어 고려 현종 이후 화려한 부활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최치원과 최언위의 비교 연보87)

최치원	연도	최언위	비고
출생	1 세 857 헌안왕1		
입당 유학	12 868 경문왕8	1 세 출생	
빈공과 1등으로 합격 (예부시랑 裴瓚 考試下)	18 874 경문왕14		
낙양을 유람하며 詩賦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함	19 875 헌강왕1		
宣州 溧水縣尉가 됨	20 876 헌강왕2		
<中山覆篋集> 5권 엮음. 겨울, 박 학평사과에 응시하고자 현위 사직	21 877 헌강왕3		
初 高駘의 館驛巡官, 5월 從軍하여 都統巡官	24 880 헌강왕6		황소의 반란군이 낙양을 함락
7월 “格黃巢書” 짓고 承務郎侍御 史內供奉 賜緋銀魚袋를 받음	25 881 헌강왕7		
5월 ‘告報諸道會兵書’ 지음	26 882 헌강왕8		高駘, 諸道行營 兵馬都統에서 파직됨
10월 신라로 출발, 풍랑으로 지체	28 884 헌강왕10		
3월, 귀국. 侍讀兼翰林學士賜紫 金魚袋를 받음	29 885 헌강왕11		
1월 <계원필경집> 20권 헌강왕에 게 바침 봄 송복사비문 찬술을 명 받음 7월 “佛國寺繡釋迦如來像幡讚 지음 “雙溪寺慧昭碑文” 찬술을 명 받 음	30 886 헌강왕12	19 國學에 재학하면서 최치원 의 지도를 받음	
1월 “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 讚”, “佛國寺阿彌陀佛像讚” 지음.	31 887 진성여왕1		
2월 이후 崇福寺碑文 지음 太山郡(전북 태인) 태수 역임	32 888 진성여왕2		王巨人 사건으 로 정국 혼란
“聖住寺無染碑文” 찬술을 명 받 음	34 890 진성여왕4		
富城郡(충남 서산) 태수로 역임 중 서경소윤 金峻과 함께 하정사 에 임명되었으나, 길이 막혀 입당 하지 못함	37 893 진성여왕7	26 입당 시도 좌절	견훤 무진주 점 령

87) 최치원의 것은 남동신(2002), 「나말여초 전환기의 지식인 최치원」, 『강좌 한국 고대사』 8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에 나오는 연보에 근거하였다.

時務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린 공으로 아찬을 제수받음. 天嶺郡(경남 함양) 태수 역임	38	894 진성여왕8			
“海印寺妙吉祥塔記” 찬술	39	895 진성여왕9			궁예 후고구려 건국
7월 이후, 賀正使 金穎과 함께 입당	41	897 효공왕1	30	최치원과 함께 숙위학생의 신분으로 입당 유학	
관직에서 은퇴. 가족과 함께 가야 산에 은거. “海印寺結界場記” 찬술	42	898 효공왕2			궁예, 송악으로 수도를 옮김
“海印寺善安住院壁記”, “釋順應傳”, “釋利貞傳” 찬술	44	900 효공왕4			왕건 국원 청주 등 공격 탈취
봄, 해인사 화엄원에서 “法藏和尚傳” 10권 지음	48	904 효공왕8			궁예, 국호를 마진으로 변경
		906 효공왕10	39	빈공과에 1등으로 합격, 예부시랑 薛廷珪 考試下	
		907 효공왕11			당 멸망
11월 이후 “八角登樓記” 지음	52	908 효공왕12			
		909 효공왕13	42	신라로 귀국	
		918 경명왕2	51	朗空 行寂비 찬술, 翰林學士 守兵部侍郎 知瑞書院使 賜紫金魚袋 역임	고려 건국
		?	?	後梁에 사신 朝請大夫 받음	
		923 경명왕7	56	澄曉 折中비 찬술, 執事侍郎을 역임	
		924 경애왕1	57	경명왕 御製 眞鏡 審希碑 代撰, 執事侍郎에서 해임	
		?	?	朗慧 無染비 건립에 書者로서 참가. 朝請大夫 前守 執事侍郎 賜紫金魚袋라고 관직 표기	
		?	?	後唐에 사신 檢校尚書左僕射兼御使大夫관직을 받음	
		935 태조18	68	신라의 귀부로 고려 개경으로 이주	6월 견훤 고려에 투항 11월 경순왕 고려에 귀부
		936 태조19	69	태자사부가 됨, 고려 관계 元甫받음	9월 후백제 멸망

	937 태조20	70	了悟 順之비 찬술, 개경의 영현 여비현의 현령이 됨 眞澈 利嚴비 찬술, 知元鳳 省事를 임시로 맡음	
	938 태조21	71	大鏡 麗嚴비 찬술, 고려 관계가 大相으로 승진하면 서 정식 지원봉성사가 됨	
	939 태조22	72	眞空 △運비 찬술	
	940 태조23	73	先覺 迥微비 찬술, 朗圓 開淸비 찬술, 신라의 관직을 비문에 사용함	경주를 대도독부 로 하고 州府군 현의 명칭을 고 침
	941 태조24	74	태조 御製 眞空 忠湛비 아들 光胤과 함께 代撰 慈寂 洪俊비 찬술	
	943 태조26	76	法鏡 玄暉비 찬술 法鏡 慶猷비 찬술, 원봉성 이 한림원으로 개칭되면서 지한림원사를 맡음	5월, 태조 승하
	944 혜종1	77	겨울 12월 卒 正匡 翰林 院令平章事 追贈	

【참고문헌】

■ 저서 및 논문

- 이현숙, 「신라말 魚袋制의 성립과 운용」, 『사학연구』 43·44합집, 한국사학회, 1992.
- , 「나말여초 최언위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이화사학연구』 22집, 이화사학연구소, 1995.
- , 「몸, 질병, 권력 : 통일전쟁기 신라의 軍陣醫學」, 『역사와 문화』 6집, 문화사학회, 2003.

Abstract

A study of Chi-Won Choi and Eun-Wi Choi in the late Silla
and the early Koryo Dynasty

Lee, Hyun-Sook

This piece of research aims to determine why Chi-won Choi(崔致遠:857-?) is considered as the founder of ancient Korean literature, making comparative study of Eun-Wi Choi(崔彦撫:868-944) who was totally ignored, nevertheless he had as same fame as a writer until the 10th century.

In this paper, first, I investigate the reputations of two Choi that was estimated by literary men in the Koryo dynasty(918~1392) and the Song China(960~1277). Secondly, I compared two Choi's careers and their ways of writing in the inscriptions of famous korean ancient zen priests.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stimations of two Choi in Koryo dynasty was influenced by the literacy officials in early Song China, especially the editors of <Ssung Wen Chong Mock(崇文總目)>, which was published in 1041. Secondly, the literary Works of Eun-Wi Choi were vanished completely in the 10th century, except the inscriptions of stone. It could be happened when his son was killed by the King Kwangjong(光宗:925-975).

Key Word

the 9th and the 10th century, Chi-Won Choi, Eun-Wi Choi, history of ancient Korean literature, the inscriptions of the korean ancient Zen priests